

문화

‘꽃의 화가’ 허정, 화면을 뒤집다

3~16일 광주 금호갤러리서 개인전

아름다움은 단지 겉모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꽃의 화가’ 허정씨가 과감하게 화면을 뒤집어 뒷면을 보여주는 독특한 신작을 발표한다. 오는 3월~16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허씨는 그동안 ‘Twist Flower’를 주제로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꽃 이미지를 선사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screen’을 주제로 더욱 완속해진 미적 세계를 펼쳐 놓는다.

이들 작품은 주로 투명 아크릴판을 재료로 사용했고, 작업이 끝난 뒤 화면을 뒤로 돌려 뒷면이 앞면처럼 보이게 했다. 색과 빛의 흔적이 투과된 투명 아크릴 판의 뒷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다. 색칠된 앞면만을 보았던 그동안의 고정 관념을 깨고, 색과 선의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움을 끄집어냈다. 겉모습만을 좇는 미학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셈이다.

특히 아크릴 특유의 광택이 작품에 더해져 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봤다.

또 허씨 작품의 특징인 활동적인 붓놀림과 흔들리는 듯한 꽃 이미지는 강렬한 색채를 만나 더욱 화려해졌다. 자유로운 붓놀림 속에 꽃향기의 순수함과 단아함이 담겨있다.

평면작품 외에도 허씨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이미지들이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영상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미술평론가 장준석씨는 “그녀의 작품은 고상관념이나 혹은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깨고, 우연적이고 비가시적인 진리를 지닌 절대적 세계를 드러내고자 했다”면서 “의도적인 기교가 배제된 무색, 무취, 무의미의 조형이다”고 평했다.

개천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허씨는 남부현대미술제, 2007국제현대미



‘screen’

술제에 참여 했고, 중국 베이징, 네덜란드, 서울, 부산 등지에서 전시를 열었다. 문의 062-360-843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천천히 걸어 800리 지리산 한바퀴

■ 이해영씨 ‘지리산 둘레길 걷기 여행’ 펴내

“친구·가족들과 해찰하며 걸으면 좋아요”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최근 ‘걷기 여행’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 중 화제의 중심은 단연 ‘제주 올레길’이다. 제주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주 올레길’은 서명숙의 책 ‘제주 걷기 여행’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리산 산하리를 한바퀴 도는 ‘길’도 있다. 이를하여 ‘지리산 둘레길’, 전라도 닷길 기지를 지닌 이해영(33)씨가 그 길을 먼저 걷고 책 ‘지리산 둘레길 걷기 여행’(한국방송출판)을 펴냈다. 지리산 둘레길 조성은 2007년 ‘사단법인 숲길’에서 부터 출발했다. 오는 2011년까지 개통될 총 300여km 중 6월 현재 남양·함양·산청 구간 70km가 열려 있다.



지난 4월 처음 지리산길 답사에 나선 이씨는 이후 수차례 지리산길을 찾았다. 큰 그림을 그려며 길을 걸었고,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또 길을 걸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속도 등 제대로 된 정보 확보를 위해 걸었다. 초고를 쓰고 난 후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기존 원고를 폐기하고 다시 쓰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

오래도록 이 땅을 ‘더트고’ 다닌 이들이 내놓은 저작물을 참고했다고 했지만 이씨가 펴낸 이번 책은 그녀가 들인 발뚎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가공하는 대신 ‘날것’ 그대로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대목은 시인 이상부와 함께 걷는 대목이다. 지리산을 오를 때마다 그녀 곁에는 항상 이상부 시집 ‘지리산’이 있었다.

“마르고 닳도록 시인의 ‘지리산’을 읽었고 외우고 다니기도 했어요. 이상부 시인은 ‘길’을 사랑한 시인이요, 그 길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인이죠. 어떻게 인연이

닿아 지리산길을 함께 걸으실 수 있는지 여쭙더니 지리산길이 너무 궁금하시다며 서울에서 흔쾌히 달려와주셨죠.”

이씨는 1박 2일 시인과 함께 길을 걸었고, 그때 나온 이야기는 책에 고스란히 실려 있다.

책에 소개된 구간은 ‘인월~장항’, ‘동강~수철’ 등 모두 6개 구간으로 각각 9~15km 정도다. 성인 평균 걸을 속도로 시간 당 4km를 기준으로 하면 한 구간당 만나질에서 하루 정도 소요되는 거리다.

초보자들에게 이씨가 권한 코스는 ‘인월~금계’ 구간이다. 아주 맛있게도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재미가 있어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씨는 70km를 완주하고 싶다면 1주일 정도의 넉넉한 시간을 내기를 권했다.

책에는 앞으로 열릴 구례·하동 지리산길과 제주 올레길을 걷는 경험도 실려 있다.

“사실, 지리산길은 경관으로 보면 ‘그림같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갈다다 다양한 ‘결’이 있어요. 아름다운 지리산 풍광에 빠지기도 하지만 쇠락해가는 농촌 마을길을 걸을 때면 쓸쓸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역시 우리가 사는 모습이니 외면할 수는 없겠죠.”

이씨는 ‘지리산 둘레길’이 ‘헬빙 관광상품’처럼 떠들석하게 소비되는 대신, 삼삼오오 짝을 이뤄 산마음의 정취를 느끼고, 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눈웃음을 ‘소박한 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숲길(063-635-0850, www.trail.or.kr)은 지리산길을 함께 걸을 ‘길동무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국악원 5주년 기념공연

3일부터 3개 국립 국악 연주단 릴레이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윤이근)이 7일 개원 5주년을 맞는다. 지난 2004년 문화예술의 보고(寶庫) 진도에 문을 연 남도국악원은 금요상설 공연 등 다양한 기획공연과 주말 문화 체험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 국악을 계승하고 국악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남도국악원은 개원 5주년 기념으로 3개 국립 국악 연주단의 릴레이 공연을 마련했다. 연주단은 지금까지 250회 공연에 8만 3천 여명의 관객을 동원한 금요상설공연 무대를 빛낸 예정이다.

첫 무대인 3일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사물놀이 ‘판곡’, 기악합주 ‘시나위’, 가야금 병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리며 10일에는 올해 새롭게 문을 연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이 기악



‘개비개비 도깨비’

합주 ‘수재천’, ‘춘앵무’ 등을 선보인다.

17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이 어린이 창작극 ‘개비개비 도깨비’를 무대에 올린다.

한편 남도국악원은 24일과 31일 ‘한여름밤의 가객 풍류’ 등 기념 공연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문의 061-540-4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3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열린다

7일까지 조선대·대인시장

‘제3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이 2일부터 7일까지 ‘다시 그리는 우리의 미래 : 아시아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조선대

와 광주 대안시장 등지에서 열린다. 아시아 각국의 청년활동가 대표들이 모이는 이번 포럼은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서의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일반인의 참석이 가능한 포럼 첫날에는 카르티케야 사라바이 인도 환경교육센터 설립이사와 마리 다카나이 아시아사회적 기업연구원장이 각각 ‘아시아 리더십’과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삶의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아시아 청년기금’의 지원대상과 시범사업도 심의의결한다.

또 오는 10월 개최(유네스코 파리본부) 될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에서 발표할 ‘광주결의안(가칭)’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4일에는 대인시장에서는 이번 포럼의 부대행사로 광주국제교류센터(이사장 윤장현)와 지역 시민 단체, 시장상인들이 주관하는 ‘제2회 아시아 청년문화 한마당’이 ‘시장, 사람 법세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문화한마당에서는 외국 유학생, 외국인, 광주시민들이 함께 공동창작물 제작, 시장 일일체험, ‘도전, 시장 끝판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부동산경매정보' (Court Real Estate Auction Information) by '정미경' (Jeong Mi-kyung).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TEL: 062-351-0664, H.P: 010-7628-0664) and a large table listing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across different districts like Gwangju, Gyeongju, and others. The table columns include district, item name, area, price, and other details.